



보도	2023.6.22.(목) 14:00	배포	2023.6.22.(목)		
담당부서	은행검사2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	백규정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김우현	(02-3145-7210)
	은행검사1국 상시감시팀	책임자	국 장	박충현	(02-3145-7050)
		담당자	팀 장	황준하	(02-3145-7065)
	은행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김정렬	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웅	(02-3145-8330)

금감원, 「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」 개최

I.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3.6.22일(목) 14시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「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」을 개최하였음
 - 은행지주(8개사)와 은행(20개사)의 준법감시인,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하였음
- 금번 워크숍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
 -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·주제발표 및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

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프로그램

시간	발표 주제	발표자
14:00~14:05	[개회 및 인사말씀]	김영주 부원장보
14:05~14:30	① 외부 전문가 특강 -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	삼정회계법인
14:30~15:00	② 최근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- 개인사업자대출 업무프로세스상 내부통제 강화방안 - 최근 금융사고 사례 및 금융사고 대응체계 개선방향 - 운영리스크 관점에서 바라본 내부통제	금감원 은행검사1국 금감원 은행검사2국 금감원 은행검사3국
15:00~15:30	③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- 장기근무직원 내부통제 강화 및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 -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검사기능 혁신사례 -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재설계 사례	신한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
15:30~16:00	④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	

II. 주요 발표 및 논의내용

- 금융감독원 김영주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
 -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성있는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고
 -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우선시하여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음을 지적하였음
 - 한편,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 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
 - 향후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, 발생경위,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,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 - 아울러,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은행-외부감사인-감독당국 간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
- 주제발표는 크게 ①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, ②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, ③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구성

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)

- 삼정회계법인(복정수 상무)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전사적 차원에서 쏠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체계를 설계·운영하는 절차임을 설명하면서
 - 횡령 등 대부분의 금융사고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,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은행 경영진, 감사(위원회) 등의 역할을 설명하였음

(2)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)

-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(재직·소득 증빙서류 위·변조 등)와 관련하여
 -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,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,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하였음
 - '23년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,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,
 -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*을 설명하고,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음
- * (은행→금감원) 사고보고 구체화, 수사보고 활성화,
(금감원→은행) 금융사고 사례 전파 활성화
- 아울러 최근 내부통제의 개념이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,
 - 최근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,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3자·ICT 리스크 확대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하였음

(3)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)

- 신한은행은 『내부통제 혁신방안』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 등을 공유하였음
- 우리은행은 인력 확충 등 검사조직 개편 및 검사주기 단축, 검사부서 KPI 조정 등 검사업무 강화 사례 등을 공유하였음
- 대구은행은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영업점에 대한 특명감사 제도,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 재정비 사례 등을 공유하였음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금일 워크숍은 다양한 관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,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,
 - 내부통제제도 실제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작년부터 추진 중인 「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(22.11.3. 보도자료)」을 각 은행이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- 금감원은 향후에도 내부통제 워크숍이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
 - 은행들이 금번 워크숍 등을 통해 제기한 금융사고 사례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요구를 워크숍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한편,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